나라현・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4 탄　　아스카 자료관

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충청남도와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 4 탄에서는 아스카 자료관을 소개합니다.

아스카는 지금으로부터 1400 년 전, 약 100 년간 수도였던 곳으로, 일본의 국가와 문화의 기초가 만들어진 장소이자 대륙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최초'의 것이 많이 탄생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현 아스카무라에 있는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아스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아스카무라에 남아있는 '아스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카 자료관 인터뷰

Q1.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1 년에 몇 번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나요?

A1. 1 년에 1~2 회, 봄과 가을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이나 아스카의 석조물 등 대표적인 주제에 더해, 아스카의 고사진과 고지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스카를 소개해 왔습니다.

아스카 자료관 전시실 모습

Q2. 2018 년부터 '되살아나는 아스카의 공방 -한일 기술 교류를 더듬어 보다-'라는 특별전이 개최되었는데 이 특별전을 기획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또한, 전시물이나 문헌 등에서 한일 교류의 증거나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성 등을 잘 알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A2. 아스카이케 공방 유적의 조사 성과를 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출토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나라문화재연구소와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동 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일 문화 교류와 기술 교류의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에서 아스카 역사를 소개하였습니다.
한일 교류를 보여주는 한 예로써 유리 제작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아스카이케 공방 유적에서는 유리의 재료를 녹이기 위한 '도가니'가 출토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가니의 형태는 한국의 백제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의 유리 공방에서 출토된 도가니와 매우 흡사합니다. 백제와 아스카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아스카 시대의 수도를 재현한 모형, 유적의 출토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즐기면서 아스카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행사 등도 개최하고 있으니 꼭 참가해 보세요.

(나라현 국제교류원 남현정)